남구 장생포동의 한 마을 주민이 주택 뒤에 조성 중인 창고시설 공사 현장을 가리키고 있다.

주택 뒤 11m 높이 옹벽 "비 오면 무너질라" 공포

장생포 일대 창고시설 건축 허가
안전 문제 등 우려 인근 주민 분통
"과거 공해이주사업 대상에도 제외
주택 코앞에 허가 내준 행정 실망"
남구 "절차상 문제 없어"

울산 남구 장생포동의 한 주거지 바로 뒤편에 창고시설 건축이 허가되면서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어 적법한 허가라는 입장이지만, 과거 '공해이주사업'에서 제외된 후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온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4월 남구 장생포동 281번지 일대에 창고시설 건축을 허가했다. 해당 부지 인근에는 8개의 노후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데, 현재는 3가구가 거주 중인 상태다.

주민들은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준공 후 생활 불편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창고시설 건립 부지 조성을 위해 주택 바로 뒤편에 약 11m 높이의 거대한 옹벽이 세워져 추후 장마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토사물이 무너져 집을 덮칠 수 있다는 걱정이 큰 상황이다.

한 마을 주민은 "어떻게 집 바로 뒤에 창고 건립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60년을 여기서 살았지만 이곳은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가스도 안 들어오고 오폐수관도 없을 정도다. 공사하면서 비라도 많이 오면 옹벽이 무너져 내릴까봐 무섭다. 이젠 진짜 못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 일대는 과거 1980년대 정부 공해이주사업 당시 이주 대상에서 제외된 곳으로 현재까지도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소외감이 깊은 상태다.

장생포26통 이주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탁상행정으로 이주 대상에서 제외돼 수십년 간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은 전혀 없이 주택가 코앞에 창고시설 허가를 내준 남구의 행정에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와 건축주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용도상 준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타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개발행위와 산지전용허가에도 이상 없었다"며 "다만 현장에 나가 보니 인근 주택에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건축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건축주 역시 상황을 인지하고 절차와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축주는 "안전에 대한 조치는 확실하게 해서 염려할 필요 없다"며 "사실 인근 주택들 일부는 토지 측량 결과 땅을 침범해서 거주 중인 상태로 확인됐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갈등을 방지하고자 주택 매입을 시도했지만 보상금 등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마을은 지난 1994년부터 공해피해에 따른 이주를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방치돼 현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심현욱 기자 betterment00@iusm.co.kr

남구 장생포동의 한 주거지 뒤로 창고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보행친화의 그늘…일산청년광장 '아슬한 경계'

차·보도 경계턱 낮추고
회색 노면에 흰색 차선 표시
경계 모호해 안전성 보완 필요
동구, 차선 테두리 검은색 보강
안전 홍보 방안도 검토키로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청년광장과 맞닿아 있는 도로. 차선과 도로의 색이 유사해 가시성이 떨어지고, 도보와는 턱이 낮아 구분이 모호해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일산해수욕장 일대에 조성된 일산청년광장이 보행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지만 인근에서는 차도와 보행공간의 경계가 모호해 이용자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반 도로와 다른 노면 색상과 낮은 경계턱으로 일부 구간에서는 차선 식별이 어렵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외 구간을 오가는 모습도 나타나 안전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8일 찾은 일산청년광장 일대. 이곳에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횡단보도 대신 차도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모습이 쉽게 목격됐다. 광장과 차도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구조인데다 보도와 차도의 경계도 낮게 조성돼 보행자들이 도로를 하나의 열린 공간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구간은 회색 계열 노면 위에 흰색 차선이 표시돼 차량 통행 공간을 직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산청년광장은 지난해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 시간에는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차도까지 보행공간으로 활용되지만, 운영 시간이 아닌 평소에도 일부 보행자들이 차도를 오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맞닿은 도로에서도 안전 우려를 낳고 있다.

주말 이곳을 찾은 이모(33)씨는 "일산해수욕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도로 색이 기존과 달라 운전하면서도 헷갈렸는데, 갑자기 차도를 건너는 시민들도 있어 놀란 적이 있다"며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보행자도 위험하고 운전자도 사고가 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산청년광장은 일상해변 풍류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왕복 5차로와 중앙화단 구조를 개선해 양측 1차로만 남기고 중앙부를 광장형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청년 문화행사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준공됐다.

하지만 보행공간 확대를 위해 차도와 보도 경계를 낮추고 회색 계열 포장재를 사용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동구는 차선 시인성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돼 차선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보강하는 등 개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 관계자는 "일반 아스팔트 도로와 달리 회색 노면 위에 흰색 차선을 적용하다 보니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는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차선 재도색과 함께 시인성을 높이는 보완 작업을 실시했다"라며 "또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펜스 설치 등을 고려했지만 미관상 설치하지 못했고 운행속도를 저감시켜 둔 상태"라고 말했다.

동구는 청년광장이 보행과 문화활동을 위한 광장 개념으로 조성된 공간인 만큼, 여름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현수막 설치 등 안전 홍보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정은 기자

울산매일신문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부채는 줄이고, 희망은 더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무엇인가요?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부채를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자격이 궁금해요.
재해피해율 50%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고, 자산재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 · 농업법인입니다.

■ 지원내용도 알려주세요.
공사가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해당 농업인에
장기임대(7~10년)후, 농업인이 환매(다시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입대상→ 농지(전 · 답 · 과수원) 및 부속된 농업용시설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
(농업용시설) 임대기간 만료시점 감정평가금액
매입상한 → 지원한도 : 6~11.3만원/㎡

■ 상담/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052-290-530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연금

오늘의 날씨

기상 안내 국번 없이 131 자료 : 기상청

울산	서울	대전	춘천	대구
17/27	21/32	20/32	20/31	19/32
	양산	부산	광주	제주
	18/30	19/27	20/31	20/26

미세먼지	좋음
자 외 선	높음
식 중 독	높음

해뜸 05:10 해짐 19:42 달뜸 19:29 달짐 03:57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

울산 주간 날씨

30(화)	7/1(수)	2(목)	3(금)	4(토)
20/30	21/30	21/26	20/27	19/27

범례: 맑음 구름조금 흐림 흐리고비 비 눈